

부활 대축일 행사



부활 제 2주일
하느님 자비주일

2022년
4월 2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9: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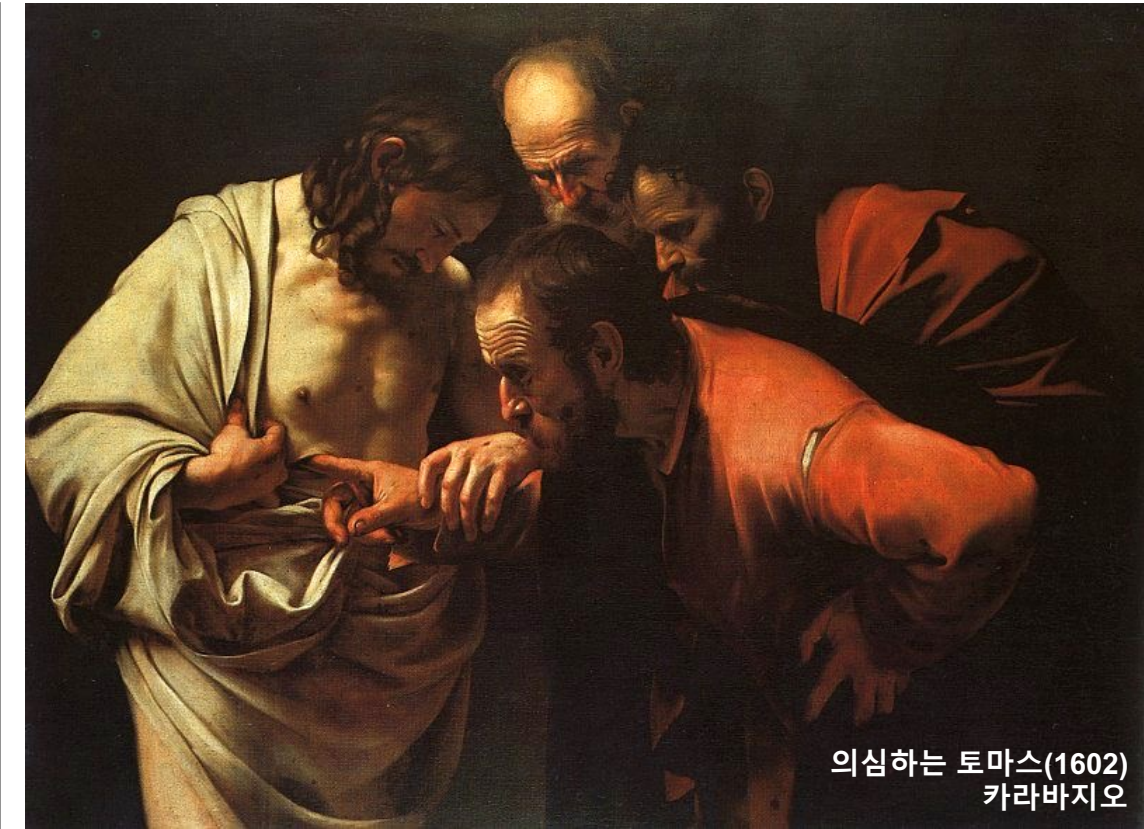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의심하는 토마스(1602)
카라바지오

<이번 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사도행전 5,12-16

화답송 시편118(117),2-4.22-24.25-27 ㄱㄴ (㉸1)

◎ 주님은 좋은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9-11 ㄴ.12-13.17-19

복음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 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4/25/22	베드로 1서 5,5 ㄴ-14	마르코16,15-20 ㄴ
화요일 04/26/22	사도행전 4,32-37	요한 3,7 ㄱ.8-15
수요일 04/27/22	사도행전 5,17-26	요한 3,16-21
목요일 04/28/22	사도행전 5,27-33	요한 3,31-36
금요일 04/29/22	사도행전 5,34-42	요한 6,1-15
토요일 04/30/22	사도행전 6,1-7	요한 6,16-21
일요일 05/01/22	사도행전 5,27 ㄴ-32.40 ㄴ-41	요한 21,1-19
	요한 묵시록 5,11-14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김진철(요한)	- 가족
•김경희(수산나)	- 가족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박병희	- 김 스텔라
•정해자	- 이은숙(가브리엘라)
•박 요한, 지 레아	- 박재영(요아킴)
•백경목(요셉), 박노임, 홍갑분	- 가족
•이종우(도밍고), 정숙림(막달레나)	- 가족

생미사	- 봉헌자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	- 문세라(에스텔), 조재익(야손)
•허기욱(바오로)	- 오경선(원선시오), 박재영(요아킴)
•하건철(안토니오)	- 하준석(마태오)
•오경숙(세실리아)	- 성가대
•김옥전	- 채미영(데레사), 김태경(카타리나)
•김민서(크리스티나)	- 가족
•이길자(마리아)	- 가족
•류선주(세실리아)	- 이 루시아
•염은미(클라라)	- 염 세실리아, 요셉회 한상철(빈첸시오)

부활 헌금 및 감사헌금

대축일 미사 참여 210명	합계 : \$8,653
최혜자(\$100) 배인호(\$100) 이대우(\$100)	
손흥구(\$100) 유용희(\$100) 최영옥(\$100)	
서영원(\$100) 김영필(\$100) 강성기(\$100)	
최영찬(\$100) 방숙자(\$100) 익명 (\$100)	
박화성(\$100) 임안나(\$100) 유근성(\$100)	
장수지(\$100) 김진 (\$100) 윤안젤라(\$100)	
서정근(\$100) 박재영(\$200) 황태진(\$200)	
채희백(\$200) 익명 (\$300) 김수완(\$300)	
오경선(\$500) 손종철(\$500) 이문식(\$500)	
이종실(\$1,000)	

교무금 납부 안내

장수지(3-5)	하연승(1-4)	전광수(5-6)
장문국(1-4)	최율리오(4)	손흥구(1-3)
합계: \$1,4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공지사항

- # 2차헌금
- 4월 24일: 유틸리티
- 5월 1일: Catholic Relief Services 단체 지원

- # Mother's Day Mass Remembrance
- 5월 8일 어머니날 영적선물로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5월 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 Holy Name Society 봄맞이 50/50 Raffle 행사
- 미 공동체 남성 신심단체 Holy Name Society에서 봄맞이 50/50 Raffle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든 행사 수익금은 성당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티켓은 장당 2불이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추천 일시 : 4월 30일 (토) 오후 5시 15분
- 추천 장소 : 친교실

- # 첫영성체 예식 안내
- 일시 및 장소: 5월 1일 (주일) 오전 9시 미사 중
- 첫 영성체를 받는 Katelyn Trzepla, Jacob Shallop, James You, Minjin Choo 학생들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주일학교 아동심리학 강의
- 일시 및 장소: 5월 1일 (주일) 오전 10시 15분 소성당
- 강의 내용: Child Anxiety
- 강연자: 아동 심리학 박사 Laura Skriner

- # 기획분과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 사물놀이 팀 개강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 (토) 오전 10시, 친교실
- 준비물 : 장구와 받침대, 팽과리, 징
- 기존 단원 및 신규 단원 환영
- 문의 : 정길예(프란체스카) 352-682-2525

- # 제 78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 일시: 5월 28일 (토) 저녁7시 ~ 30일(월) 오후 5시
- 장소: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 신청: 미동북부 대표 김정현 요한, 류정아 아녜스 부부 917-415-4200, johannesMENY@gmail.com
- 5월 1일 미동북부 대표 부부가 본당을 방문하여 미사 공지사항 시간 중 짧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지난 부활 대축일 포장마차 행사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1독서 <사도행전> 5,12-16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게든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1,9-11 나. 12-13.17-19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일곱 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뵈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복음 > 20,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